소년단

1955. 1

새해의 첫 인사를 원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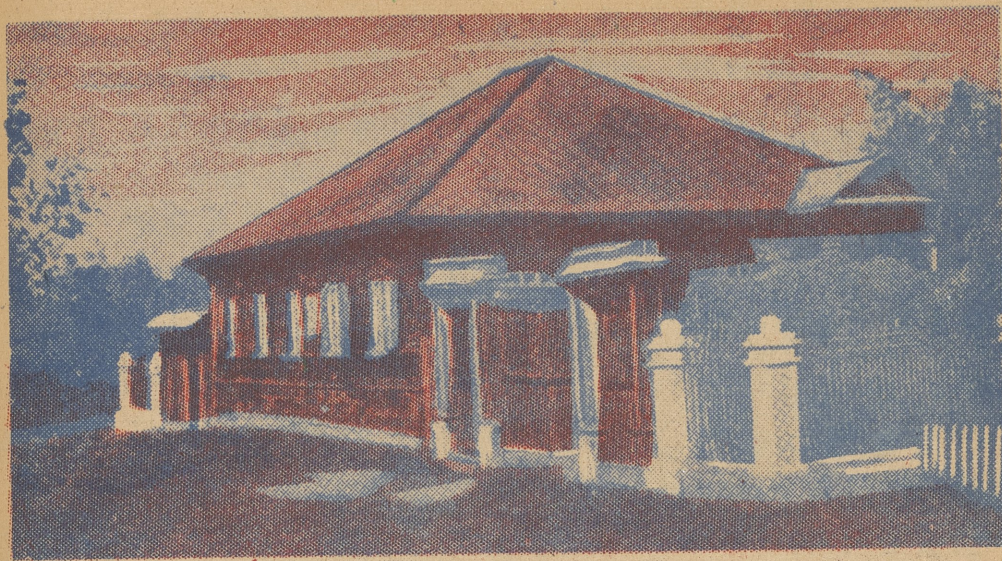
위대한 승리의 또 한 해가
저 밝은 해'발 아래 펼치여 졌구나!
새해 첫 아침의 태양을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께 인사를 드리자。

우리가 배우며 뛰놀며 자람을
언제나 저 태양이 내려다 보듯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희망을
언제나 원수님은 살피여 주시네。

원수님은 새해 첫 아침에도
새로운 승리를 바라다 보시며
우리의 행복과 건강을 생각하시네。
우리의 학습과 미래를 생각하시네。

………민주주의 새 조선을 세우는
  영웅들이 되여 주기를 바란다…
빛나는 태양을 우러러 서면
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울려 오네。

—지난 해보다 더 꾸준히 배우겠습니다—
원수님께 새해의 첫 인사를 드리는
우리의 앞 가슴에, 우리의 앞길에,
해'발은 더욱 더 빛을 보내네—。

김 학 연

레닌 선생의 어린 시절 이야기

레닌선생이 어렸을 때 사람들은 그를 울까라고 불렀습니다

울까의 키는 그리 크지 않았으나 몸이 아주 단단했으며 머리칼은 윤기가 흐르고 눈동자는 빛났습니다.

그는 아주 활발하고 용감했으며 학습도 잘 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상글상글 웃었으며 사람마다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꽃 병

울까가 여덟살 때 한번은 아버지와 누님들을 떠나 까잔의 고모 집에 놀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고모 집에도 사촌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오래'동안 만나지 못하였던지라 함께 모여서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겠습니까! 그들은 달음질도 하고 뜀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희를 하고 놀았습니다.

어느날 그들은 서로 따라 잡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율까는 달음질 쳐 달아나다가 그만 부주의해서 꽃병이 놓인 책상과 부닥치고 말았습니다.

『탕』 소리와 함께 책상이 넘어졌습니다. 어쩔가요! 꽃병이 깨여지고 만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서로 쳐다 보며 놀라서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고모가 달려 들어 왔습니다. 꽃병을 깨친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누가 꽃병을 깨쳤니?』

아이들은 모두 대답했습니다.

『난 안 깨쳤어요』

율까도 가는 목소리로 『난 치지 않았어요』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책상에 있는 이 저 혼자 스스로 깨졌단 이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만 어린 율까 혼자만 웃지 않습니다.

두달이 지나서 어린 율까는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느날 밤 아이들은 모두 들었는데 어린 율까만은 한 석에서 애처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어 보았습니다.

『너 왜 울고 있니?』

어린 율까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까잔에 갔을 때 나는 고모를 속였어요. 고모한테 난 꽃병을 깨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 꽃병은 내가 깨친거야요』

어머니는 그를 달래면서 말씀하였습니다.

『아, 그랬니! 근심 말고 울지 말아! 내 고모한테 편지해 주겠다. 고모는 너를 용서해 줄게다』

어린 율까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모한테 꼭 편지해 주세요. 네, 꽃병은 내가 깨쳤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엄마는 또 한번 그를 달래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어린 율까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미소를 품고 잠들었습니다.

『허튼 소리, 죽은 사람을 무서워 할게 뭐야』

율까의 어머니와 고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숲 속에 가서 산채 뜯기와 나무 열매 따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들은 남비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숲 속에서 불을 피워 놓고 산채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숲 속에는 물이 없어서 물을 길어 올려면 작은 개울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개울 근처에서는 그 전에 강도가 나와서 산림직이를 붙들어 개울'가 두 그루 나무에 매달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이것을 알고 있어 그 곳에 갈 념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율까만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청해서 용기를 내여 물을 떠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두 물었습니다.

『너 무서웠지?』

『무엇이 무서워?』

『죽은 사람, 그 산림직이 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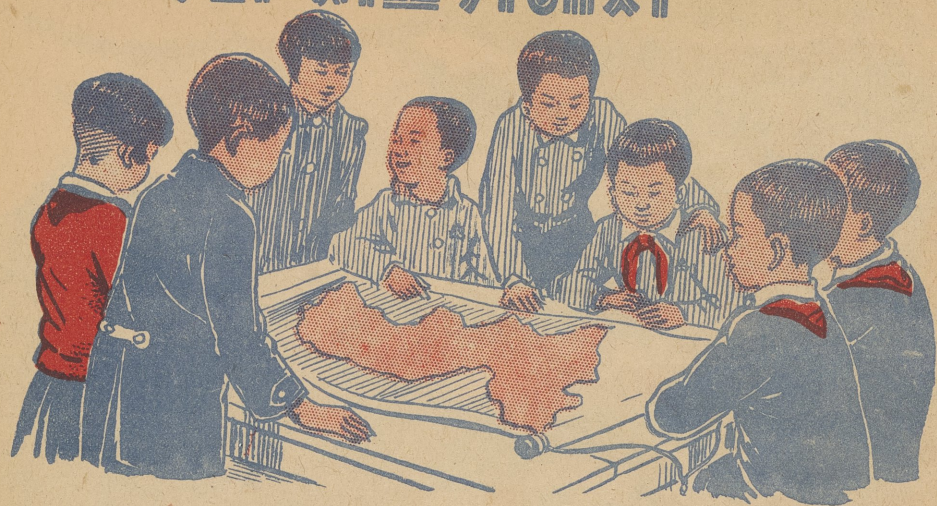
『허튼 소리! 죽은 사람을 무서워 할게 뭐야!』

율까는 이러한 어리석은 소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성내군 하였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섭다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간단하게 날카롭게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 하고…

3페지 사진은—1898년 7월부터 1900년 2월까지 울라지미르 일리츠 레닌 선생께서 사시던 집.

즐거운 설맞이

조국의 지도위에서

= 전진하는 우리 조국! =

1955년! 위대한 전망의 새해 첫 아침 우리들은 조국의 지도를 펼친다!

맑은 아침의 나라로 불리우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은 새해를 맞이하여 인민들의 벅찬 감격과 환희로 들끓는다.

새해의 이 아침—우리들은 승리로 찬란할 한해의 맹세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삼가 드린다.

『모든 것을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로!』라고 부르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말씀을 받들어 로동자, 농민들을 선두로 한 전체 인민들은 이 아침에 조국의 보다 힘찬 전진을 위하여 복구와 건설의 우렁찬 새해의 첫 출발을 힘차게 내 디디였다.

× ×

우리 나라 공업의 기둥으로 되고 있는 성진 제강소, 김책 제철소, 강선 제강소, 남포 제련소, 황해 제철소, 문평 제련소들에서 울며 오는 증산 경쟁의 노래'소리를 새해를 맞이하여 무한한 기쁨으로써 우리는 듣는다.

지난 해 9월 30일에 1954년도의 년간 계획을 완수한 성진 제강소의 전기로 앞에서는 안 상조 로력 영웅이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기 위하여 자기 브리가다원들과 함께 새해의 첫 작업에 들어서고 있다.

그는 전쟁 시기 지하 전기로 작업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여 지하 전기로의 20배나 되는 10톤 전기로에서 12—14시간의 용해 시간을 5시간 40분까지 단축시켜 강괴 생산 계획을 계획보다 석달이나 앞서 완수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안 상조 로력 영웅의 모범을 따라 전체 우리 나라의 용해 로동자들은 궐기하였다.

우리들의 시선은 조국의 지도 우에서 새 기술로 설비된 우리 나라의 기계 제작 공장인 희천 기계 제작 공장과 희천 자동차 부속품 제작공장이 있는곳으로 옮겨간다. 이 공장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지도밑에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건설공사를 착수하였던 것이다.

지난 해 7월 25일에 조업한 이 공장들은 우리 나라 공업, 운수, 농업에 필요한 다량의 기계들을 생산해 내기 위하여 생산과 건설의 불 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 조국의 산야를 줄기차게 달리는 기관차를 볼 때나 우리 조국 방방곡곡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의 하늘 높이 솟은 굴뚝들에서 힘차게 내뿜는 연기를 볼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수천척 지하에서 석탄 생산에 돌진하고 있는 탄광에로 떨어 간다.

황해 제철소에서 레일이 생산되여 나온다

신창, 안주, 사리원, 라북 탄광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1954년도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한데 대하여 보내 주신 김일성 원수의 축하에 더욱 고무되여 지난 해보다 올해에는 더 많은 석탄을 캐 낼 결의에 가득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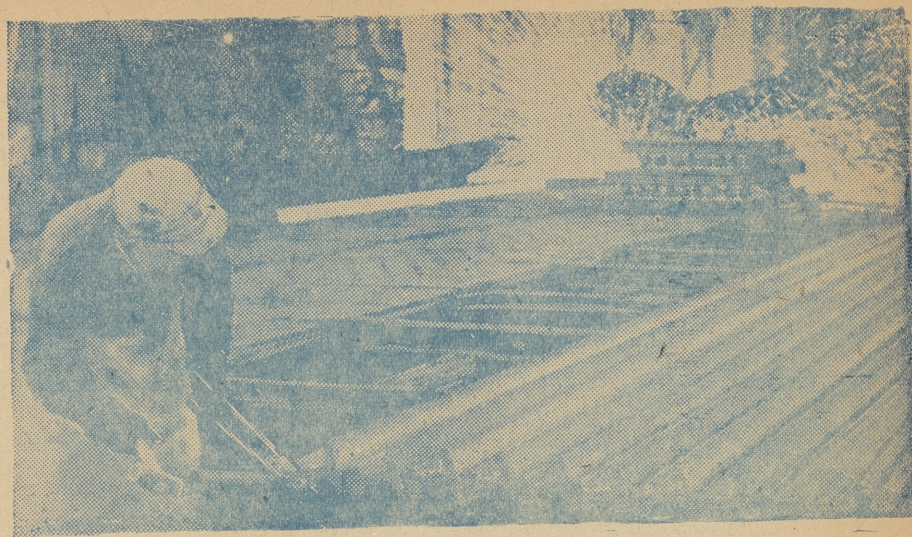
석탄 공업 부문 일'군들을 우대할데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깊은 배려는 그들의 증산 의욕을 더욱 북돋아주고 있다.

후창 광산 착암 로동자 차 창선 아저씨는 지난 해 12월 2일까지 3개년 계획을 이미 완수하였다.

아저씨는 화풍 광산의 착암 로동자 김 창선 로력 영웅의『평행식 심발 발파법』과 계생 광산의 착암 로동자 리 종섭 로력 영웅의『계단식 채굴법』을 본받아왔다. 그리하여 4월 28일에는 하루에 169톤의 광석을 떨구어 1,141%의 새 기록을 세웠으며 그후 계속 평균 3—4배로 매달 계획을 완수함으로써 1년도 채 못되는 동안에 3개년 계획을 완수한 것이다.

검덕 광산 착암공 조 두실 로력 영웅은 지난해 11월 27일에 1,318톤의 광석을 떨구어 다시 빛나는 새 기록을 세웠다.

이것은 불같이 뜨거운 애국심—당과 조국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 대한 충성심에서 우러 나온 열매인 것이다.

조국의 지도 앞에 모여 선 우리들의 시선은 수천만 m의 면직물과 견직물을 짜내고 있는 평양, 구성 방적 공장을 비롯한 방직 공장들과 견직 공장들이 있는 곳으로 쏠려진다.

지금 평양 방직 공장 로동자들은 1956년에 가서 1년에 6천만 m의 천을 짜 내게 될 빛나는 전망을 바라보며 꾸준한 로력 투쟁과 함께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들은 이 공장이 낳은 두 로력 영웅—직포공 고 영숙 로력 영웅과 정방공 김 봉례 로력 영웅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다.

그들은 민주 수도의 눈부신 건설을 아침 마다 대동강 건너 바라보며 분초를 다투는 자기들의 일손을 재인다.

우리 공화국의 심장인 평양시에는 고층 건물들이 우뚝우뚝 높이 솟았으며 이 겨울에도 건설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모란봉 극장, 내각 사무국 보조 청사, 국제 호텔 공사에서 쏘련의 꼴레로브 5인조 벽돌 쌓기 작업 방법으로 벽돌 쌓기에서 하루에 11,000매를 쌓는 혁신을 일으킨 최 성수 로력 영웅과 그의 작업 방법을 본받고 있는 벽돌공들의 벽돌 쌓기 속도에 발맞추어 미장 작업에서 혁신을 가져온 송 덕훈 로력 영웅을 비롯한 미장공들

백무 고원은 눈부시게 개간된다! (국영 5호 종합 농장에서)

도 1955—1956년간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랑하게 될 평양 역사, 국제 호텔 구획 주택, 로동자 아빠트 구획 주택, 유자녀 학원 기숙사, 조선식 려관 등 건설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올릴 새로운 결의를 이 아침에 다지고 있다.

8•15 해방 10주년을 맞이하는 위대한 명절날의 평양은 얼마나 굉장할 것인가!

8•15 해방 기념 10주년 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화국 방방곡곡으로부터 민주 수도로 모여 올 귀중한 손님들은 한 남수 영웅, 조 병희 로력 영웅 등 기관사들이 운전하는 렬차를 타고 민주 수도 평양으로 올 것이다.

기관사 형님, 아저씨들은 인민들의 유쾌한 려행과 건설 물자들을 재빨리 수송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각에도 기관차의 레기레바를 굳게 틀어쥐고 우렁차게 기적 소리를 울리며 도시와 농촌으로 달리고 있다.

멀리 모쓰크바로 부터, 이웃 북경으로 부터 그리고 와르샤와, 쁘라가, 베를린, 부다페스트로로부터 수억만 우리의 친애하는 형제 나라 벗들로부터 보내오는 새해의 축하와 함께 귀중한 원조 물자가 련달아 렬차에 실려 오고 있다.

백두산의 울창한 밀림 속에서는 로력 영웅 김 와룡 아저씨를 비롯한 수 많은 로동자들이 아름드리 봇나무들을 벌목하는 소리가 산울림하며 울려 나온다.

백두산 림산 철도로는 수 많은 목재가 건설장으로 건설장으로 줄지어 운반되고 있다.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조국의 지도 우에서 열두 삼천리 벌로 눈'길을 돌린다.

랑림 산맥으로부터 서해 바다에로 이를 그대로 맑게 흘러 내리는 청천강—평남, 평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 강 남쪽으로부터 서해안 일대에 펼쳐진 열두 삼천리 벌을 더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한 평남 관개 공사는 눈부신 속도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쏘련과 여러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로부터 보내온 강력한 굴토기들이 일하고 있다.

이 공사가 끝나면 총면적 25,000 정보의 기름진 땅에서 해마다 53,000톤의 쌀을 더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들은 장백산맥과 랑림 산맥 줄기에로 시선을 옮겨 간다.

백무 고원의 국영 5호 농장에서도, 자강도 오수덕 고원의 국영 중강 농장에서도 이 한해에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봄 맞이 차비에 한창이다.

백두산 천지로부터 동해 바다로 흘러내리는 두만강 기슭——

종성 양돈 목장에서는 지난날 소년단원이였던 리 복순 로력 영웅이 인민들에게 더 많은 육류를 보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한배에서 23두의 새끼 돼지를 내여서 잘 길렀으며 이 한해에도 계속 가축의 증산과 사육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 우리 조국의 지도 우에서는 새로운 농업 기계와 선진 영농 방법으로 다수확을 거두고 있는 7,400여 개에 달하는 농업 협동 조합들의 새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해에 18정보의 논에서 1,022 가마니의 벼를 더 냈으며 랭상모를 한 논에서는 한 정보에서 21톤 375kg의 다수확 기록을 낸 운전군 운하 농업 협동 조합원들은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높은 전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경소들은 더 많은 뜨락또르와 꼼바인과 중경 제초기들을 농촌에 보내여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힘든 일을 덜어 줄 것이다.

우리 조국의 지도 우에서 우리들은 푸른 색 갈로 칠한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를 보게 된다.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에는 수 많은 고기떼들이 웅실거린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해산물을 보내기 위하여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의 각 어장들에서는 위대한 쏘련에서 보내온 어선들과 우리 나라 조선소들에서 만든 굉장한 어선들이 고기 잡이에 바쁘다.

우리 조국의 지도 우에는 아름다운 거리와 마을들이 일어서고 새로운 학교들과 극장, 영화관, 구락부, 민주 선전실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

웅장하게 일어선 학교들에서는 행복하게 공부하는 우리들의 랑랑한 글 읽는 소리가 온 누리에 퍼져 나가고 있다.

참으로 우리 조국은 아름차게 전진! 또 전진하고 있다.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지도 앞에 선 우리들의 가슴은 무한한 기쁨과 행복으로 부풀어 오른다.

소년단원들이여, 소리 높이 자랑하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날 속에 살고 있는가!

× ×

승리로 찬란히 빛나 올 1955년!

새해 이 아침 우리들은 다함 없는 행복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자!

우리 조국 북반부의 눈부신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의 가혹한 통치밑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는 남반부 인민들에게 승리의 자신심을 고무해 주고 있으며 광명을 비쳐 주고 있다.

조국의 지도 우에서 보다 더 행복해질 조국의 앞날을 그려 보며 한해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를 가슴 깊이 명심하며 우리들은 전진하는 우리 조국의 훌륭한 로력 혁신자, 과학자, 기술자, 작가, 교원이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새해 이 아침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삼가 맹세를 드리자.

리 기 봉
원 웅

우리 나라에서 풍부히 생산되는 학용품들.

조선 로동당은 항상 조선 인민들을 빛나는 승리와 무한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며 수 많은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끊임 없이 따뜻한 배려를 돌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한 없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빛나는 영예, 이것은 오로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의 끊임 없는 배려의 덕분입니다.

만일 김 일성 원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 로동당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오늘과 같이 영광스러운 영웅 조국의 따뜻한 품 속에서 행복하게 배우며 새 조선의 주인으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은공에 의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가르침을 따라 항상 빛나는 승리와 행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 왔습니다.

당과 수령이 앞길을 밝혀주는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의 부모, 형님들이 영원한 땅의 주인이 되였고 또 공장과 광산의 주인이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화국 북반부는 참으로 살기 좋은 행복의 터전으로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은 특히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이 즐겁게 배우며 뛰놀며 쉴 수 있는 수 많은 새 학교와 아동 궁전, 아동 공원, 아동 영화관들을 지어 주도록 따뜻한 배려를 돌리시였습니다.

벌써 1949년에 우리 나라의 인민 학교 수는 해방 전 1944년에 비하여 1•8배나 늘었고 학생 수는 1•7배나 늘었습니다.

초급 중 학교와 고급 중 학교 수는 20배나 늘었고 그 학생 수는 2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104개의 탁아소, 100개의 아동 공원, 훌륭한 아동 도서실을 갖춘 106개의 도서관이 설치되였습니다.

만약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우리 나라에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지 않았드라면 우리들은 보다 행복하여 졌을 것입니다.

원쑤 미제와의 가혹한 전쟁에서 조선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의 옳바른 가르침을 따라 한사람 같이 궐기하여 악독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조선 인민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만이 조선 인민을 승리와 행복에로 인도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의 주위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돌려 주어 우리들은 하루도 배움을 중단함이 없이 꾸준히 배워 나갈 수 있겠습니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의 조선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과 승리는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의 이름과 밀접히 련결되여 있습니다.

당과 수령은 전쟁이 끝난 후 곧 조선 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뚜렷한 승리의 길을 명시하였고 보다 희망에 찬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인민들은 당과 수령이 가르치신『모든 것을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에로!』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후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는 투쟁에 힘차게 궐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정전 후 1년 반 동안에 수 많은 공장, 광산들이 복구 신설되여 우렁차게 돌아가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마을들은 보다 풍요한 황금의 전야로 변하여졌습니다.

이리하여 3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54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빛나게 완수되였습니다.

특히 공장, 광산, 농촌과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수 많은 우리들의 학교들이 보다 아름답고, 보다 훌륭하게 일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과 수령이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정전 후 벌써 세번이나 실시된 물'가 인하로 인민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행복하여져 갑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와 조선 로동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나아가는 조선 인민들 앞에는 보다 빛나는 승리가 있을 것이며 우리 어린이들의 앞길은 끝 없는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우리들은『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라는 소년단원의 구호를 명심합시다.

이 구호는 우리들이 당과 수령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소년단원들의 성스러운 구호입니다.

우리들은 당과 수령이 가르치는 승리와 행복, 영예와 보다 희망에 찬 미래를 위하여 새 조선의 훌륭한 주인으로 준비하며 더욱 열심히 배워 나아갑시다.

우리들은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한다

조선 소년단 해주 제1 중 학교 대 위원장 권 중 균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는 우리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에 가맹하는 것은 가장 큰 영예입니다.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이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학습에서 모두다 우등생, 최우등생이 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각 분단들에서는 우수한 학습 경험들을 소개하며 규률있게 복습을 진행하며 유익하고 재미있는 모임들과 실험 실습 사업들을 광범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청 년령 해당자들이 있는 분단들에서는 매주 2회씩 분단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 밑에 민청 강령 규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령 규약을 연구 할 때에 우리들은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전투에서나, 로력 투쟁에서 항상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로동당의 후비대로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수 많은 민청 형님들의 애국적 투쟁을 실례로 들어 가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민청원으로 준비하는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강령 규약을 다만 암송만 하던 결점을 없애고 강령 규약 연구를 통하여 민청은 로동당의 후비대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민청원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 가를 깊이 알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생애와 활동을 더욱 깊이 연구하는 모임을 일상적으로 조직하여 왔습니다.

새 학년도에 들어 와서 민청원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한 결과 소년단원들은 학습과 소년단 생활 그리고 사회 사업에서 항상 소년단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라 났으며 민청원으로 준비되여 왔습니다.

소년단원들이 민청원으로 준비되여 감에 따라 우리 학교 대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초순에 『민청 형님들의 뒤를 따르자!』라는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들은 김 기우 2중영웅과 김 창걸, 김 성진, 박 원진 영웅을 비롯한 전투 영웅들과 로력 영웅들의 투쟁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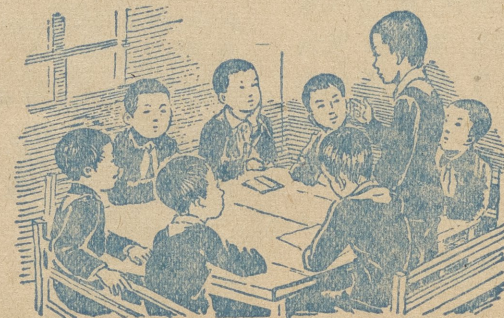
모임에서 우리들이 연구한 영웅 형님들은 모두 민청원들이였으며 로동당원들이였습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훌륭한 민청원이 되는 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로동당원으로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우리들은 민청원으로 추천 받을 날을 앞두고 한결 같이 훌륭한 민청원이 될 것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소년단에서 교양 받았으며 훌륭한 민청원이 되고 영광스러운 로동당원으로 된 박 원진, 림 돈욱, 리 정수 영웅 형님들의 이야기는 소년단에서 민청원으로 추천 받을 우리들의 영예감을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말까지 우리 학교 대에서는 이와 같이 준비해 온 80명의 소년단원들을 민청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추천 받은 이들은 모두다 최우등생, 우등생들이며 소년단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동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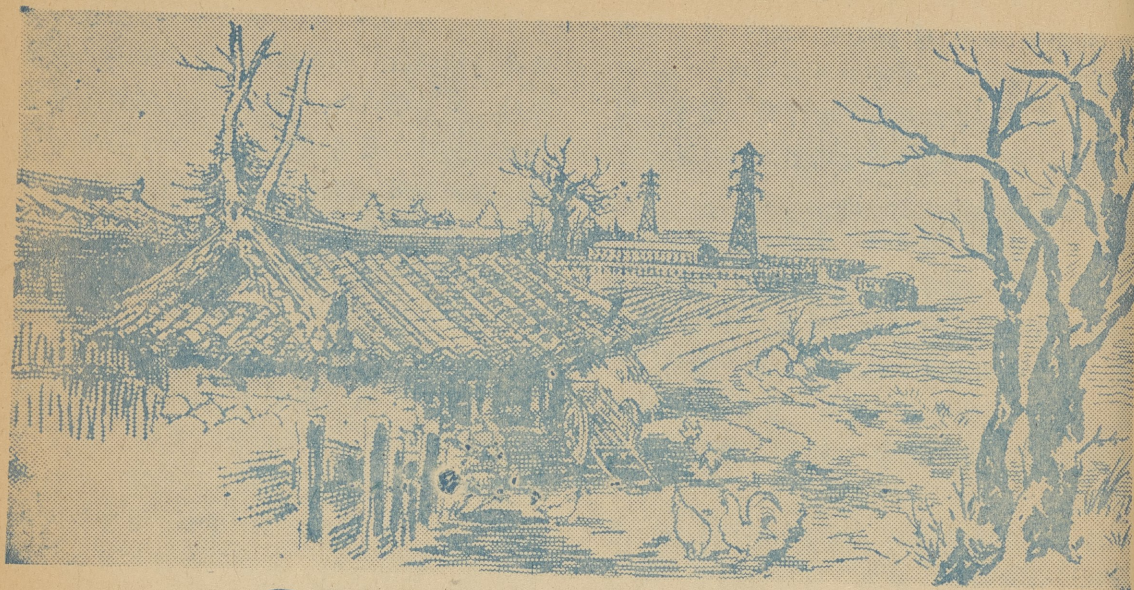
그후 이들은 민청 초급 단체 총회를 거쳐 시 민청 상무 위원회에서 모두 영예로운 민청원으로 되였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민청원으로 된 최우등생 리 선옥 동무는 『나는 오늘 그렇게 바라고 바래오던 영예로운 민청원이 되였습니다. 나는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과 함께 이날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로동당의 후비대인 민청원이 된 영예를 나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훌륭한 민청원으로 되겠습니다』라고 동무들 앞에 민청원이 된 감격과 결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민청원이 된 우등생 김 순애 동무는 『나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가르침을 따라 지난날 소년단원이였던 림 돈욱. 리 정수 영웅들처럼 훌륭한 민청원이 되고 영광스러운 로동당원이 되기 위하여 학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민청원이 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 대에는 민청 년령 해당자 6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같이 민청원이 되기 위하여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모범을 보이면서 민청원으로의 준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머지 않은 앞날에 이들도 영예로운 민청원으로 추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

조선 소년단 황해북도 황수 제 2 중학교

대 위원장 정 경 필

제1분단 위원장 리 명 희

재령강을 옆에 끼고 무연한 넓은 벌판에 자리 잡은 우리 마을 월음동은 날마다 새 살림이 꽃 피여가는 행복한 마을입니다.

새 해를 맞는 어느날 현 태국 동무는『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연구하자고 우리 분단 위원회에 제의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분단에서는 왜놈 시대에 지주 놈의 온갖 착취를 받으며 살아 오다가 해방후 땅의 주인으로 행복하게 사는 최 삼성 할아버지와 마을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리 두만 아저씨를 찾아 가서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 해방 전 우리 마을 ☆

『우리 마을에는 왜놈들이 망할 때까지 30 여호의 농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8•15 해방 전 우리 마을 농민들의 비참하던 생활 형편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시였습니다.

당시 우리 마을에는 리 희섭이라는 지주 놈이 1,200정보나 되는 넓은 벌판을 독차지하고 농민들은 단 한치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농민들은 해마다 지주 놈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소작료를 바치면서 소작살이를 해 왔습니다.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곡식이란 말뿐이였습니다. 지주 놈들은 생활이 곤난한 농민들이 한해 여름 꿔다 먹은 쌀과 돈 그리고 비료 값을 가을에 가서는 갑절이나 비싼 값과 리자를 붙여서 농민들에게 차례진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놈들의 혹심한 공출과 그리고 온갖 세금으로 농민들은 자기에게 차례진 곡식을 모주리 빼앗기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탈곡은 했어도 농민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다만 북데기 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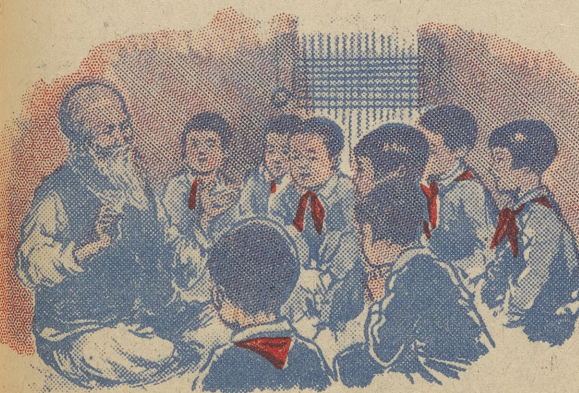
실로 눈물 겨운 생활이였습니다. 어느 해에는 지은 곡식을 몽땅 공출로 왜놈들이 빼앗아 갔답니다. 왜놈들은 그것도 부족되여 순사 놈들을 동원하여 가지고 집집을 수색하여 저녁쌀조차 남기지 않고 모주리 략탈해 갔습니다.

농민들은 치미는 분노를 참다 못해 왜놈들과 맞 서 싸웠답니다. 그러나 놈들은 혹심한 탄압으로 농민들을 감옥으로 몰아갔고 남아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더욱 야만적인 략탈과 탄압을 가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적지 않은 농민들은 영영 이 마을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시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생활은 농민들로 하여금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킬 생각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해방 전 우리 마을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란 거의 없었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원쑤 미제와 리승만 매국 역도들이 통치하는 남반부 농민들과 어린이들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원쑤 미제와 리 승만 매국 역도들에 대한 불붙는 증오를 더욱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뒤이여 마을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리 두만 아저씨는 해방 후 우리 마을에 꽃핀 행복한 생활과 더욱 더 행복해 질 앞 날의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였습니다.

☆ 우리 마을의 현재와 앞날 ☆

『해방 후 토지 개혁의 혜택으로 우리 마을 농민들에게는 기름진 좋은 토지가 분여되였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아저씨는 계속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였습니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께서 령도하시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처음으로 땅의 주인이 된 우리 마을 농민들은 한 없는 기쁨 속에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결 같이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의 23—27%만을 현물세로 납부하게 된 농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풍부해져만 갔고 학교 없던 우리 마을에도 훌륭한 새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증산 의욕에 불타는 우리 마을 농민들은 메마른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1948년 봄 다 같이 힘을 모아 은파군 봉어리로부터 4㎞나 되는 관개 수로 공사를 완공하고 리내 100 여 정보의 휴한지를 일구어 보다 많은 수확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품 속에서 날마다 행복해져 가는 우리 마을에는 해방 후 5년간 (전쟁 직전까지)에 10 여 채의 기와 집과 함석집이 새로 세워졌고 집집마다에는 전기가 가설되고 라디오로 평양과 멀리 모쓰크바에서 보내오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이 꽃피게 되였습니다.

해방 전엔 학교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한 우리 마을 학령 아동들은 김 일성 원수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인민 학교에 다니게 되였고 지금 초급 중 학교와 전문 학교들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후퇴의 시기에 이처럼 행복하던 우리 마을은 미국놈들의 갖은 략탈과 파괴와 학살로 말미암아 그 이듬해의 영농 사업에 큰 곤난을 받게 되였습니다.

이렇게 곤난한 때에 항상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배려를 돌리고 있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마을 농민들에게도 수백 가마니의 량곡과 종곡들 그리고 구제미와 위대하신 쓰딸린 대원수께서 보내 주신 밀가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을 농민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이 두터운 배려에 고무된 농민들은 원쑤들의 야수 만행이 심하면 심할수록 원쑤에 대한 타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전쟁의 승리 위한 식량 증산 투쟁에 더욱 더 힘차게 섰습니다.

원쑤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오늘 우 마을엔 협동 조합이 조직되고 새로운 농 방법과 기계화로 더욱 새로운 발전 길에 들어서게 되였습니다.

정전된 해 가을부터 조직되기 시작 우리 마을 협동 조합은 지난해 2월에 식으로 11호가 망라되였습니다.

협동 조합의 논갈이는 모두 뜨락 르로 손쉽게 진행되였습니다.

협동 조합원들은 보다 더 많은 농토 얻기 위해 황무지 2만 7천 여평을 새 개간하는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황무지를 개간할 때 일부 농민들 『공연한 고생』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더 기 일부 로인들은 『원 소금땅을 일쿠다 풀도 제대로 돋지 않는 땅을…』하며 웃음을 쳤답니다.

그러나 협동 조합원들은 로력의 열매 반드시 훌륭하게 맺어질 것이라고 굳

으면서 꾸준히 힘을 합하여 땅을 구고 모를 심었습니다.

가을에 이 논에서는 정당 7t 200kg라는 다수확을 거두게 되여 코웃음하던 일부 농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지난날 코웃음하던 김 성렵 로인까지도 『협동 조합이 과연 좋다』고 감탄하면서 자기도 협동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요청해 왔다는 것이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는 벼 30가마니 정도 밖에 거두지 못하던 농민들은 오늘 협동 조합에서 힘을 모아 농사를 지은 첫해에 벌써 현물세를 바치고 여유곡 400 가마니나 국가에 자진해 팔고도 매 로력당 평균 벼 53 가마니가 차례지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두 로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100 여 가마니의 분배를 받게 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여 마리의 돼지와 다섯필의 소를 길러 온 부업 경리의 분배까지 받으면 협동 조합 한해 생활에서 집 한채씩은 번드시 지을 수 있게 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의 두번째 해인 올해에는 국가에 필요되는 식량과 공업 원료를 더 많이 보내기 위하여 우리 마을에서는 이미 퇴비 운반 준비와 온갖 농사 도구들도 수리 정비를 끝내였고 동기 작업실에서는 계속 부업 생산에 힘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날로 기쁨에 가득차 가는 우리 마을에는 올해에 새로 민주 선전실과 구락부를 지으며 마을 주변에는 과수원을 만들고 농민들의 문화적 휴식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난 우리들은 더욱 아름답고 행복해 질 래일의 우리 마을을 머리에 그리며 앞날에 훌륭한 농업 기술자, 뜨락또르 운전사가 되여 우리 조국의 농업을 보다 발전시킬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지였습니다.

동 요

아침 체조

개천 초등 학원
리 용 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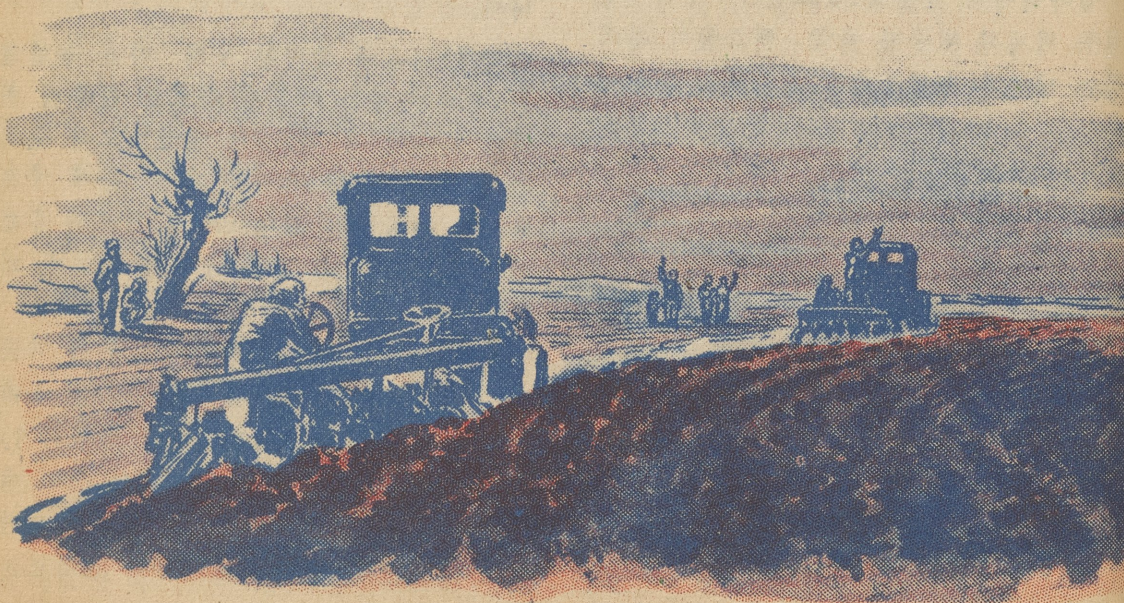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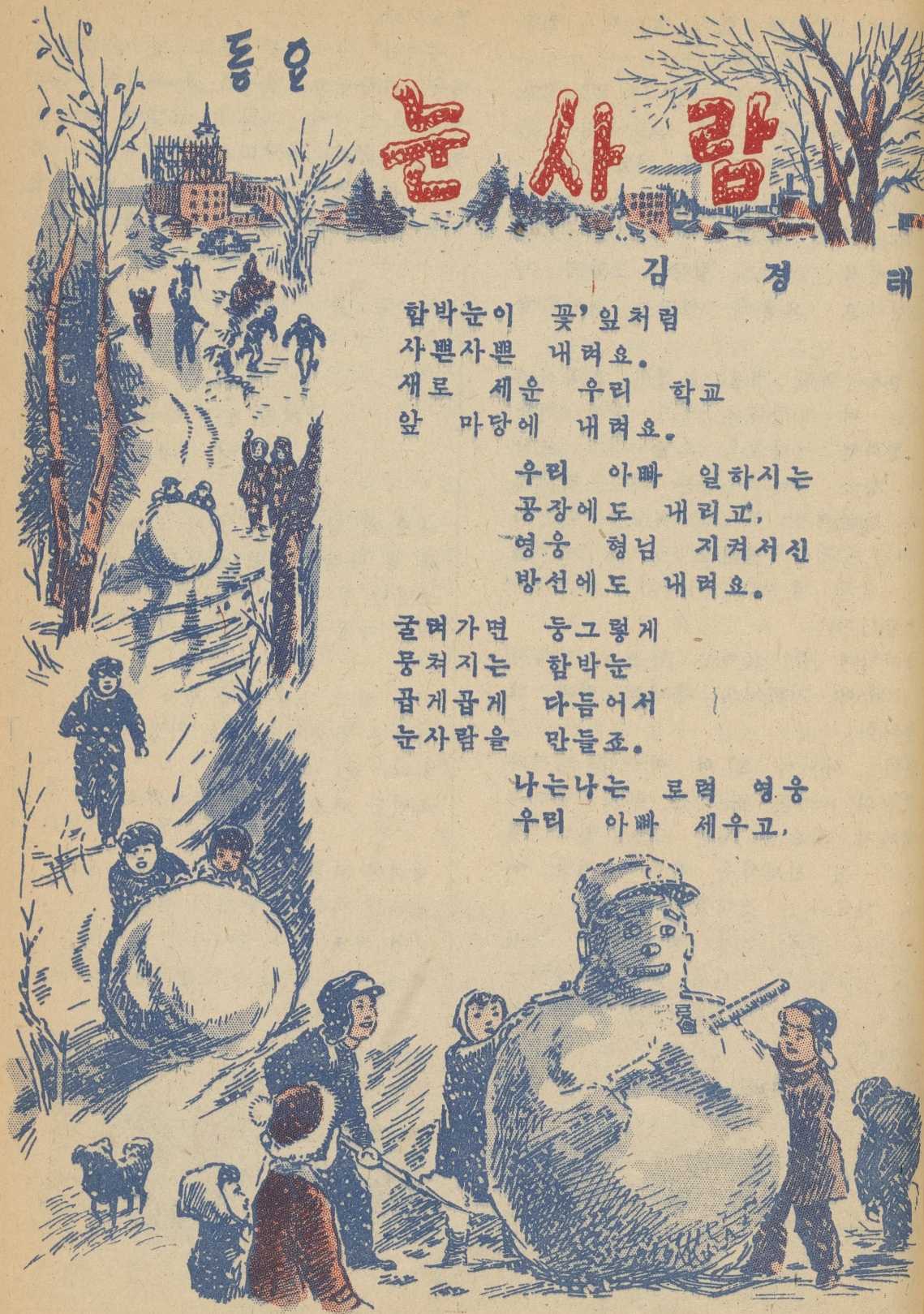
아침 해'님 방긋이 솟아 오르면
해'님 따라 우리는 운동장에 모이죠.
소년단 인사는 기쁨에 차고
새해 아침 운동장엔 웃음꽃이 피지요.

가슴 펴고 아침 바람 힘껏 마시면
마음은 산뜻하고 몸은 가볍고
하나, 둘, 셋………
소년단 체조는 참말 즐거워요.

새해엔 모두 몸 튼튼히 다져
공부를 더욱 더 잘하기 위해
아침 체조 하나, 둘, 셋이 나면은
새해 아침 해'님도 방글방글 웃지요.

동요

눈사람

김 경 태

함박눈이 꽃'잎처럼
사뿐사뿐 내려요.
새로 세운 우리 학교
앞 마당에 내려요.

우리 아빠 일하시는
공장에도 내리고,
영웅 형님 지켜서신
방선에도 내려요.

굴려가면 둥그렇게
뭉쳐지는 함박눈
곱게곱게 다듬어서
눈사람을 만들죠.

나는나는 로력 영웅
우리 아빠 세우고,

수남이는 영웅 형님
인민 군대 세우죠.

자랑 많은 아빠, 형님
누가 먼저 만드나,
신이 나서 영차영차
눈 뭉치를 굴려요.

눈바람이 몰아쳐도
추위 이겨 나가며
영웅 아빠, 영웅 형님
자랑 높이 세워요.

보란 듯 우뚝 세운
금별 메달 영웅 앞에
모두모두 모여 들어
손벽치며 기뻐해요.

박 규 단

회망과 영광으로 가득찬 새해의 아침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여 나는 이 한해를 보람 있게 보낼 것을 결의하고 있다.

내가 보낸 지난 한해에는 헛되게 보낸 시간이 적지 않게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다짐한 일도 오늘 못하면 래일에 하지, 래일은 일요일이니까 그 동안 못한 것을 모두 일요일에 해치우지…하는 등 학습을 일과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때때로 있었다.

이것은 나의 좋지 못한 버릇이였고 자기 결심을 어기는 마음 약한 행동이였다.

지난 해의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선생님께서 하신『오늘은 오늘 할 일이 있고 래일은 래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그러므로 나는 새해의 하루 하루가 나의 학과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 보람 있도록 시간의 분과 초를 귀중히 여기며 아끼겠다. 그러기 위하여 나는 일과표를 바로 세우고 그대로 규률 있게 열심히 학습하며 체육 연예 사업에 열성껏 참가하겠다. 이리하여 올해에는 모든 과목에서 5점을 맞고 훌륭한 최우등생이 될 결심이다.

1955년도의 카렌다의 마감'장을 번질 때 헛되게 보낸 시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후회하지 않도록 새해의 첫 아침부터 나는 귀중한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겠다.

* * *

협동 조합의 일손을 도와

우리들은 운전군 미륵 농업 협동 조합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해 농사를 훌륭하게 끝마친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농업 협동 조합의 겨울 일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가마니 짜기와 새끼 꼬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들은 복습을 끝마치면 아버지, 어머니들의 바쁜 일손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짚 이기기, 짚 추기 등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힘 자라는데까지 돕고 있으며 리응철 동무의 반 동무들은 가마니 날로 쓸 가는 새끼 30m씩을 꼬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보식 동무네 반 동무들은 짜낸 가마니를 맵씨 있게 꾸미도록 잘 다듬어 주는 일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미륵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장 최 인식 형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치하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공부를 잘 하는 한편 짬만 있으면 이렇게 부지런히 농업 협동 조합 어른들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평북 운전군 대오 인민 학교 대 통신원 정 광철

조선 소년단 함북 경성 제1 인민 학교 대에서.

한 영

며칠째 퍼부은 함박눈에 산도 들판도 왼통 눈 속에 묻혔습니다.

새해에 들어 오면서, 더 세찬 바람이 눈보라를 몰아 윙윙 울어 댔습니다.

썰매 타기에는 몹시 추운 날이지요.

그러나 오늘도 종성이는 반 동무들과 함께 한나절을 주을천 얼음판에서 지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그들은『국어'과 모임』을 위하여 종성이네 집에 모였습니다.

『얘들아!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불가강』에 대한 학과 모임을 끝마쳤을 때 문뜩 철만이가 말하였습니다.

『응 정말 그래! 작품 전람회 준비를 빨리 해야 될거 아니야』

금자의 말입니다.

방학을 이틀 앞둔 날 대 열성자 모임에서는 방학 간에 각 분단과 반에서 여러가지 작품을 만들어 그것으로 전람회를 가질 것이 결정되였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요업 공장 아저씨들이 만드는 도자기를 본을 받아 진흙으로 꽃병과 조각품을 만드는 것이 어때?』

『어린 비행사』의 이름을 가진 종성이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종성이는 지난 해 가을 청진에서 열린 도 모형 항공기 경기 대회에서 2등을 한 재간 있는 소년단원입니다.

이날 반 모임에서는 작품 전람회에 내놓을 방학간 선물로 진흙으로 만든 여러가지 작품을 만들 것이 토의되였습니다.

철만이와 득공이는 얼어 붙은 땅을 파서 진흙과 백토(흰흙)를 장만하기로 하고 금자와 종성이는 학교 소년단실에 있는 조각품 모형을 가져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교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과 대 위원장에게 제기하여 자기들의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이 일하는 주을 요업 공장을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대, 분단 열성자들을 비롯한 20여명의 소년단원들은 박 인형 선생님과 함께 주을 요업 공장에 견학 갔습니다.

『이 기계는 형제적 쏘련 인민들이 보내준 선물이요. 이 기계

가 우리 공장에 도착된 후 우리들은 여러가지 도자기를 종전보다 더 많이 만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도자기를 만들게 되였소』

깨끗하게 옷차림을 한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견학하고 난 소년단원들은 공장 기사장 차 영록 아저씨에게서 도자기의 여러가지 모형과 그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날 꽃병 주전자 곱뿌의 모형과 을지 문덕 장군의 조각 모형을 공장 아저

씨들에게서 배워 만들어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이리하여 각 분단과 반들에서는 이튿날부터 공부하는 짬짬이 자기들이 계획한 『방학간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성이네 반에서는 꽃병과 곱뿌, 주전자를 만드는 외에 소년단 잡지에서 본 김 성진 영웅의 동상을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봐! 아주 멋지게 되였지!』

꽃병을 만들고 있던 금자가 한바탕 자랑을 내놓았습니다.

진흙으로 겉 모양을 곱게 다듬은후 그 우에 백토로 희게 칠하였습니다.

그리고 꽃무늬를 붙이고 물감으로 색칠까지 하니 정말 훌륭한 꽃병이 되였습니다.

득공이와 철만이는 김 성진 영웅 아저씨의 동상을 정성 들여 만들어 갔습니다.

『원쑤들의 중기가 사납게 짖어댈 때 김 성진 영웅 아저씨는 불을 토하듯 이렇게 웨쳤단다. "로동당원이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 나의 목숨을 바쳐 저 중기 화구를 막아야 한다"』

『얼마나 훌륭한 아저씨야. 그러니 우리들이 만드는 이 조각도 영웅 아저씨의 용감한 모습이 나타나게 해야 하거든』

득공이와 철만이는 수류탄을 쥔 아저씨의 손과 원쑤를 노려보는 눈을 몇번이고 고쳤습니다.

김성진 영웅 아저씨의 동상을 다 만들고는 땅크와 박격포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제2 분단과 제3 분단에서도 여러가지 작품이 만들어 졌습니다.

제2 분단에서는 똑딱선을 두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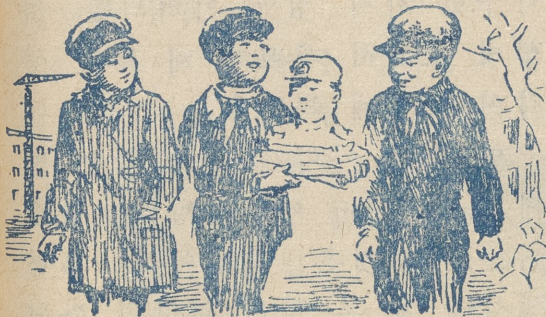
여름 방학에 온대진에 야영 갔을 때 보고 온 고기' 배를 본을 받아 만든 것입니다.

제3 분단에서는 을지 문덕 장군의 조각과 따발총 세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경성 제 1 인민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방학 동안에 공부에 힘쓰는 한편 자기들의 재간 있는 솜씨로 김 성진 영웅과 을지 문덕 장군의 조각을 비롯하여 배, 따발총, 박격포, 땅크, 보총, 꽃병 등 51개의 진흙으로 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재간과 힘을 바친다면 못 할 일이 없어!』

『그럼, 아버지, 오빠들도 이 작품을 보신다면 아마 몹시 칭찬해 줄거야』

이제 돌아 오는 새 학기에 열릴 작품 전람회를 보시고 칭찬하여 줄 아버지와 오빠, 언니들의 모습을 눈 앞에 그려 보는 소년단원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동물 셈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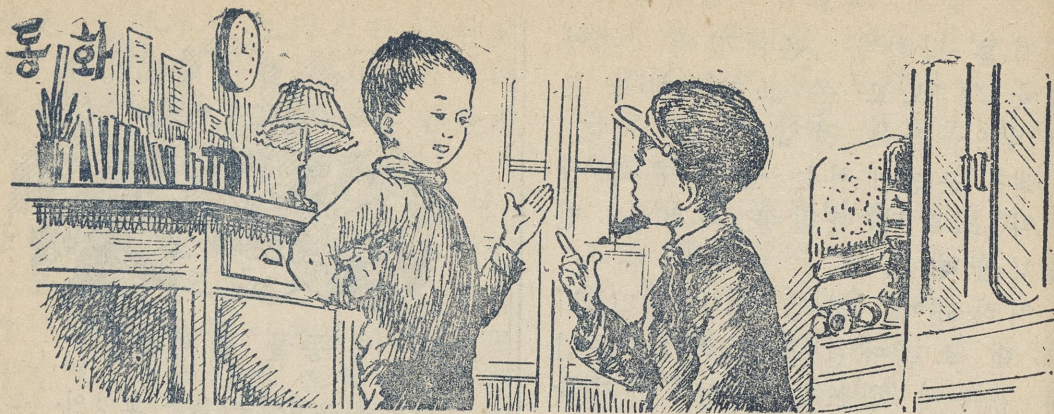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에는 많은 고양이, 오리, 닭들이 있습니다.

웃 줄 왼편부터 세여 보기로 합시다. 첫째 고양이, 첫째 오리, 둘째 고양이, 첫째 닭, 세째 고양이, 둘째 오리, 둘째 닭……이렇게 차례를 따라 세여 나갑니다.

셀 적에는 잘 외여 두었다가 빨리 세여야 합니다. 천천히 세는 것은 안됩니다.

가령 네째 줄의 첫째 닭은 『다섯째 닭』 인데 『네째 닭』 이라고 세였다면 다시는 더 세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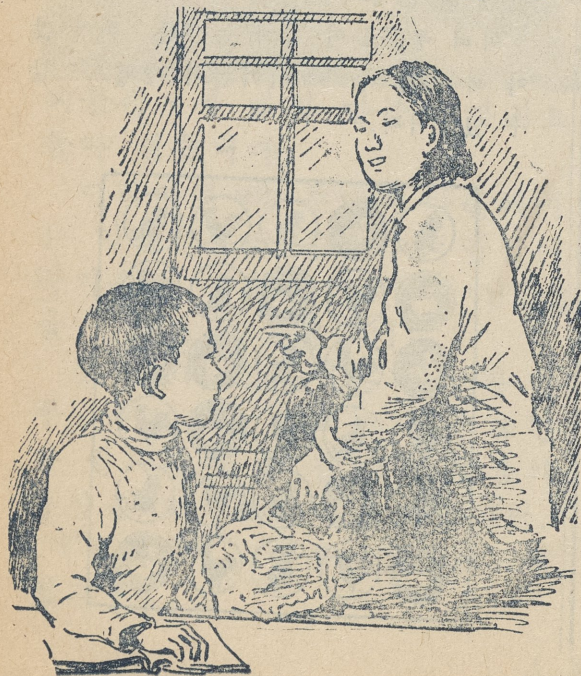
어린 동무들 얼마나 셀 수 있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 동무들이 함께 논다면 누가 많이 세는가, 누가 이기는가 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돕는 일

김 도 빈

어머니는 바깥으로 나가시면서 옥남이에게 말했습니다.

『애! 마당이 어지럽구나, 마당을 깨끗이 쓸어 놓고, 닭 모이를 주어라, 잠간 밖에 나갔다 올께』

『네! 알았어요. 다녀 오세요』

어머니가 나가시자 이웃 집 아이가 옥남이를 찾아 놀러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놀다가 두 아이는 제각기 자기 어머니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의 말은 죄다 같은 말이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자기들을 사랑해 주시며 자기들도 어머니가 제일 좋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 옥남아! 어머니가 좋다구만 하지 말구 어머니를 어떻게 도와서 기쁘게 해 드릴 생각이냐 말해 봐라!』

이웃 집 아이가 불쑥 묻는 말에 옥남이는 어리벙벙해 졌습니다. 그것은 옥남이가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넌?』

하고 옥남이는 대답은 하지 않고 되 물었습니다.

『난 큼직하게 도와 드릴 작정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흠뻑 기쁘시게 할래!』

이 말에 『나도』하고 옥남이는 덧붙이로 말했습니다.

이웃 집 아이가 돌아 가자 옥남이는 혼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큼직하게 도와 드려야 할 텐데, 재봉침하는 법을 배워서 재봉 일을도와드릴가? 아니 그건 작은 일이야. 김 매는 기계를 만들어 김을 쉽게 매시도록 해드릴가? 아니 그것도 작아, 옳지 됐어, 비행기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어디를 가시나 비행기를 타고 다니시면 퍽 좋으실거야』

한창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 오셨습니다.

옥남이는 마주 달려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께 비행기를 만들어 드릴 래요. 편안히 타고 다니시게요』

머리도 꼬리도 없는 말에 잠간 서 있다가 어머니는

『날 타고 다니라고 비행기를 만들겠어? 참 착하다!』

하고 말을 하고 나서 옥남에게 물었습니다.

『애! 닭에게 모이를 주었니?』

『아니요』

『마당은 쓸었니?』

『못 쓸었어요』

『힘들어서 못했니?』

『어머닐 큼직하게 도와 드릴 걸 생각하누라구…』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알으켜 주었습니다.

『네가 날 도와주려면 조그마한 것부터 해야지. 그게 큰거야. 닭 모이 좀이야 너도 줄 수 있지 않니!』

원 도 홍

1

새로 지은 4층집 교사로 처음 들어와 보는 인민반 학생들은 얼마나 교사가 훌륭하였던지 아침 한 동안은 우아래로 오르 내리며 자기들의 새 학교를 구경하노라고 법썩이였습니다. 모두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벨이 울리자 법썩거리던 학생들은 모두 자기 반으로 찾아 들어 갔습니다.

새 책상, 새 의자에 앉은 학생들은 모두 자세를 곧게 하고 조용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류달리 잘 머리에 들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첫 날 공부가 끝나자, 5학년 학생들은 새 교실을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새 교실에 환경 정리까지 환하게 해 놓으니 모두가 꼭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우기 분단 도서함은 학생들의 마음을 몹시 끌었습니다 .재미나는 책들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더 훌륭한 책들을 더 많이 장만하고 싶어했습니다.

재미나는 책들을 더 많이 늘어 놓고 쉬는 시간에 동무들과 머리를 모으고 보았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 좋은 수가 없나?』

하고 성급한 경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앞에 앉아 맑은 눈을 깜박거리고 있던 정남이가 일어 났습니다.

『얘들아, 우리 모두 한 책씩만 가져오면 되지 않니』

이 말에 딴 애들도 좋다고 떠들었습니다.

앞에 나가 서 있던 경호는, 어쩌문 내 마음을 그렇게 꼭 알아 주느냐는 듯이 생글거리는 눈초리로 정남이를 바라 보고

『얘들아, 난 세 책 가져 오겠어』

하고 큰 소리를 치며 세 손'가락을 빳빳이 세워 동무들 앞에 내 보였습니다.

이때 정남이 곁에 턱을 고이고 가만히 앉아 있던 치삼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조용하기를 기다려 멋적은 얼굴로 사방을 둘러 보다가

『그런데 책 없는 앤 어떻거니?』

하고 근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용해지던 애들은 또 저마끔 일어나며 대'구하였습니다.

『없는거야 어떻거니, 있으면 가져 오자는거지……』

이때 분단 위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좀 조용해, 한 동무가 한 책씩만 가져 와두 마흔 세 책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니, 그러나 없는 애들에게 무리하게 가져 오라는건 절대로 그만 둬야겠어, 그리고 다 본 다음엔 가져 온 애들에게 꼭 도로 돌려 줘야 해』

이리하여 학생들은 분단 도서함을 더 훌륭히 만들어 가지고 더 보람있게 움직여 나가도록 결의를 다졌습니다.

2

치삼이는 매우 그림책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졸라 그림 책을 사면 꼭 책상 뺄함 속에 넣고 쇠를 잠가 두고 혼자만 보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그의 어린 동생이 밤낮 그림 책 보자고 조르나 좀체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주면 꼭 더럽히든가 찢든가 하는 까닭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치삼이는 쇠를 열고 뺄함에서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갓 사온 것처럼 새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좋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쁘다고 골라 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책, 저 책 고르다 그만 그림에 정신을 잃어 한참 동안 그림만 보다 말고 도로 다 뺄함에 넣고 쇠를 잠구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자기 책은 한권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교실 안은 아침부터 웃음꽃이 피여 있었습니다.

『야! 참 멋 있네!』

여기 저기 모여 앉은 학생들은 경쟁이나 하듯 환성들을 올렸습니다. 모두들 자기가 보던 귀중한 책들을 한권 뿐만 아니라 있는 대로 가져 왔습니다. 가지고 온 책들 중에서 좀 낡아진 책들은 모두 깨끗이 뚜껑도 해 씌웠습니다. 책을 한권도 못 가져 온 것은 치삼이 뿐이였습니다.

그는 모여 앉은 애들의 곁에 가 볼 념도 못내고 슬근히 자기 자리에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척 하였습니다.

『자 이전 책들을 다 가져 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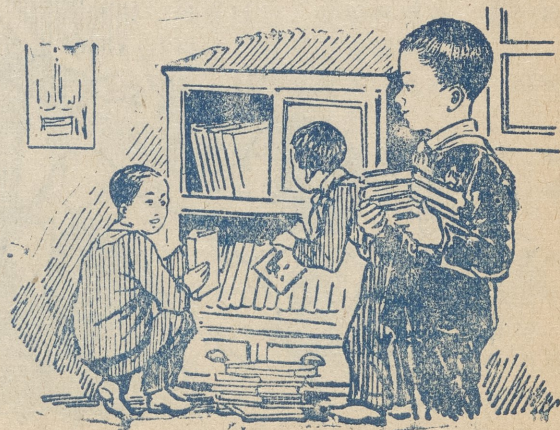
경호는 마치 자기 일처럼 책을 모아 우선 도서함에 꽂았습니다.

책은 아래 우층으로 된 도서함에 거의 찰 지경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야 요거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네. 야 누구 또 없니』

애들에게서 책을 받아 꽂던 경호는 마치 자기 마음 한 구석이 빈 것 같아 애들을 돌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더 없었습니다.

다음날 경호는 자기 책들을 모두 가져다 도서함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정남이도, 또 딴 애들도 몇책씩 더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도서함에는 그림책, 이야기책,

과학 책, 동요 동시 집들로 꽉 차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책은 경호가 맡아 간수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매 책마다 번호와 가져 온 동무들의 이름을 써 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 대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빌려 줄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건 우리들이 다 보면 도로 가져 온 동무들에게 돌려 줄텐데 깨끗이 봐라, 응. 그리고 재미 있는 책이 생기면 또 가져와, 혼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다 나누어 보니까 얼마나 좋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빌려 가는 애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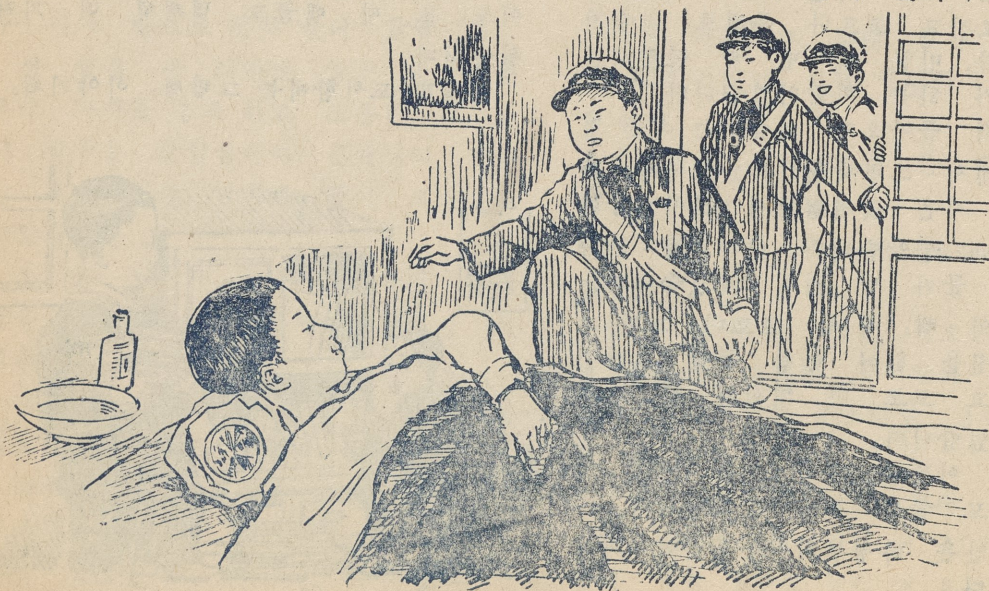
『걱정 말어, 그쯤은 다 알어』

하며 서로 우쭐대며 빌려 갔습니다.

그림 책을 좋아하는 치삼이도 딴 애들에 섭쓸려 매일 한 책씩 바꾸어 빌려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3

하루는 치삼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기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녁 때 분단 동무들이 그의 집을 찾아 갔습니다. 치삼이 어머니는 친절히 그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치삼이는 누워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분단 동무들은 조심스레 치삼이의 머리 맡에 코여 앉으며 낮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머리가 아파……』

치삼이는 얼굴을 찌프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짝패인 정남이는 매우 걱정스러워 치삼이의 머리를 짚어 보았습니다. 후끈하였습니다.

『야, 열이 많구나, 너희 집에 체온기 없니?』

정남이는 까만 눈이 동그라져 물었습니다.

『있어』

『어디 있니?』

『저기』

치삼이는 아무런 생각 없이 책상 밑을 가리켰습니다.

정남이는 컴컴한 책상 밑을 굽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에 조그만 체온기가 얹혀 있었습니다. 정남이는 책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굴 빛이 흐리여졌습니다. 바로 우에 있는 것이 정남이가 분단에 내였던 그림책이였습니다. 그런데 경호가 씌웠던 뚜껑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장이 찢어져 달아나고

거미줄 같은 연필 줄이 마구랑 그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남이는 아무 말 없이 체온기를 들어 치삼이의 겨드랑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체온기의 도수가 오르는 동안 정남이는 찢어진 자기 그림 책 아래에 있는 새 그림 책을 꺼내 동무들과 같이 조용히 책 갈피를 번져 나갔습니다. 그것은 훌륭하고 재미 있는 그림책이였습니다.

『야 멋 있는데, 우리 분단엔 이런 책 드물었지?』

『그래』

분단 동무들은 아주 조심하였으나 그림책이 너무나 재미 있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름 없이 눈을 감고 있던 치삼이는 눈을 떠 동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그만 눈을 감고 돌아누웠습니다. 동무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가슴은 자꾸 울렁거렸습니다.

이윽고 동무들이 체온기를 빼들고

『치삼아 이것 봐, 우린 한 40도나 될 줄 알고 걱정했는데 37도 8부야, 이것 좀 봐, 야』

하고 돌아 누워 있는 치삼이 눈 앞에 체온기를 갖다 뵈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치삼이에게는 그런 건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무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가 하는 걱정으로 하여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열을 재보고 마음을 놓은 분단 동무들은 그림책을 끝까지 보고는 일어섰습니다.

『치삼아 우린 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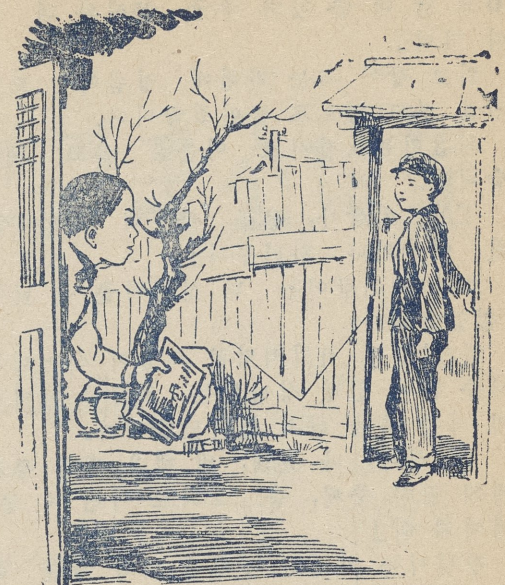
이 말에 눈을 감고 돌아 누워 있던 치삼이는 펄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누워 있어』

동무들은 그를 못 일어나게 하고 문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병 치료 잘 해, 우린 또 래일 저녁에 올께』

동무들은 문을 닫아 주며 이렇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치삼이에게는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정남이를 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급히 옆에 놓인 두 그림 책을 집어 들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왜 그래, 어디 더 아프니?』

대문 밖까지 나갔던 정남이가 눈이 둥굴해 달려 들어 왔습니다.

치삼이는 정남이의 맑은 눈'동자와 눈'길이 마주 치자 고개를 숙이고

『아니야, 이거 가져 가』

하고 다짜 고짜로 아까 정남이가 보던 그림 책과 찢어진 그림 책을 내주고 들어 가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때 밖에 나가셨던 치삼이 어머니가 들어 오셨습니다.

『아니 벌써 다들 갔니?』

치삼이 어머니는 정남이더러 좀 더 놀다가 가라고 하시였습니다.

『아니야요,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걸 받아 두세요』

정남이는 사양하며 치삼이에게서 받은 새 그림 책만을 치삼이 어머니에게 내 주었습니다.

『거 치삼이가 주던, 그 애가 글쎄 제 책은 뒤두구 학교 책을 어린 동생에게 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니, 그러군 어제 저녁 아버지한테 꾸지람을 듣구 제 그림 책을 대신 낸다고 그러더니 그건게로구나. 자 건 래일

학교 갈 때 좀 갖다 주구, 들어와 며 놀다 가라」

하고 잡아 끄는 바람에 정남이는 도로 신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치삼이는 잠자코 이불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 치삼아, 동무 왔는데 웬만 하면 이야기나 하려무나」

그러나 치삼이는 더 정남이를 볼 낯이 없었습니다.

한참'동안 서먹서먹히 치삼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던 정남이는 치삼이 어머니가 나간 틈을 타서 일어났습니다.

「치삼아, 나 갈래, 네 책은 래일 경호에게 갖다 주께, 응. 그리고 이건 네 동생에게 줘」

정남이는 자기의 찢어진 그림 책을 치삼이의 머리 맡에 놓았습니다.

「아니야, 것두 가져 가」

치삼이는 이불 속에서 말하였습니다.

「일 없어 어린 애가 그렇건걸 뭐……자 그럼 래일 또 올께. 병 치료 잘 해—」

정남이는 밖으로 나오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삼이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정남이는 부엌에서 쫓아 나오는 치삼이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

이틀이 지난 아침, 잠에서 깨여난 치삼이는 몸이 가뜬하였습니다. 열도 내렸습니다.

치삼이는 학교로 나갔습니다. 그는 길에서 분단 위원장인 홍석이를 만났습니다.

「인전 다 나았니?」

「다 나았어」

홍석이는 수집어하는 치삼이를 보고

「너, 어제 낸 책 때문에 다툼질이 날 번 한거 아니?」하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치삼이도 웃으며 머리를 끄덕했습니다.

「먼저 보겠다구 서로 앞을 다투어 도서함에 모여 드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래 나두 있는 책들을 모두 가져와」하고 신문지에 싸 쥔 것을 보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그들이 교실에 들어 섰을 때, 누군가 맞받아 달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가 어제 치삼이의 그림 책을 먼저 보겠다고 다툼질을 할번 했다는 칠성이였습니다.

「야 너 언제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니? 참 네 그림 책 이거야. 그런거 또 없니」하며 엄지 손'가락을 하늘로 곧추 세우고 치삼이 눈 앞에 내 보였습니다.

치삼이는 뭐라고 대답할 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 바라보는 동무들의 시선을 받으며

「벌써 가져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이렇게 마음두 괴롭지 않구 동무들을 벌써 즐겁게 했을 걸, 래일은 있는 책을 다 갖다 동무들과 나누어 볼테야」

하고 치삼이는 부끄러운 웃음을 지으며 동무들을 돌아 보며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무용

어린중국소녀들

1

출연하기까지

출연자들은 무대 뒤 좌측 구석에 관객들로부터 일렬 종대로 지어 선다.

* *

이 무용은 띠를 가진 8—20명의 소녀들이 할 수 있다.

옷은 푸른색 또는 까만색 바지에 소매가 짧은 하얀 적삼을 입고 까만색 신을 신는다.

띠는 길이 2—3m의 가재로 만들고 허리에 둘러 앞에 가져다 매며 오른쪽 끝이 우를 향하여 나오게 맨다. (그림1)

이 무용은 북 또는 소북에 맞추어 춘다.

첫 리즘은 천천하고 조용하게 $\frac{4}{4}$ 박자로 친다.

둘째 리즘은 빠르고 힘있게 $\frac{2}{4}$ 박자로 친다.

그 박자에 따라 첫 리즘을 두번 친다.

출연자들은 세째번 5박자에 맞추어 왼발로부터 제1 동작을 한다.

무대 뒤를 따라 끝까지 가서 선 두 소녀는 오른편으로 돌아 무대 가운데로 대오를 리드한다. (그림 2)

원섬으로부터 쌍을 이루어 중앙을 지나 앞줄까지 와서 흩어지여 한쪽으로 원을 그리며 돌아 간다. (그림 3)

만약 10명 이상이 출연한다면 두쌍을 이루고 원을 그린다.

첫 자세

8 박자:

원심에 얼굴을 돌리고 그 걸음으로 원심부를 향하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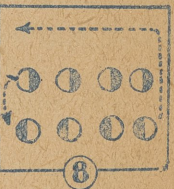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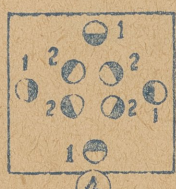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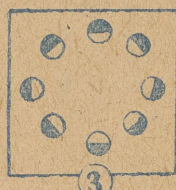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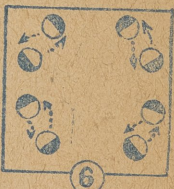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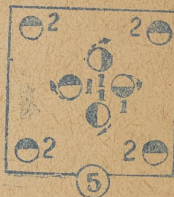
제1 동작을 두번 반복하고 먼저와는 반대로 오른편으로 뒷걸음 치며 돌아 간다.

이때 오른 팔을 우로 흔들며 원을 그린다. (그림12)

그 동작을 반복하여 중심부로부터 나온다.

제2 자세

첫번과 둘째번의 동작을 반복 한다.

1 박자와 2 박자:

그 걸음으로 중심부를 향하여 나간다.

제2 박자 자세에서 첫번

검 사 제

☆

8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엔 오른팔을 흔들며 원을 따라 오른쪽으로 돌아 간다 (그림 11, 12, 13)

3 박자와 4박자

첫번엔 원으로부터 나가고 둘째번에는 원심부를 향하여 돌아가는 동작을 계속한다. (그림 4)

제2 박자의 자세에서는 모두 오른 팔을 흔들면서 원의 오른 편으로 돈다.

5 박자와 7박자

첫번째는 원으로 들어가고 둘째번에는 원으로부터 나온다.

8 박자

첫 동작의 자세에서 오른쪽에 반형을 만들며 왼발에 몸 무게를 주고 선다. (그림 5와 14)

그다음 오른편으로 돌아 관객들을 향하여 무릎을 굽히고 앉는다. (그림 19)

세째 자세

첫번에는 제2 동작을 두번 한다. (그림 15, 16, 17, 18) 둘째번에는 제3 동작을 두번 반복하고 8 박자에 무릎을 펼친다.

네째 자세(그림 6)

16 박자

북은 제2 리듬을 친다. 모든 출연자들은 제4 동작을 하고 (그림6, 23, 24, 25, 26, 27과 28) 마지막엔 두 렬을 짓는다. (그림 7)

다섯째 자세(그림 7)

16 박자

템포는 빠르다. 모두 제5 동작을 한다. (그림 29와 30). 전렬은 왼편으로, 후렬은 오른편으로 대각선을 짓는다.

마지막 퇴장(그림 8)

템포는 빠르다. 전렬은 왼쪽으로, 후렬은 오른쪽으로 돌아 따라 선다.

띠로 목에 원을 그리며 제6동작 (그림 31, 32)을 한다. 그리고 련속적으로 더빠르게 동작하며 무대 왼편 뒤 구석으로 퇴장한다.

(그림 8)

동작을 어떻게 할것 인가

동작 1

띠의 끝을 쥔다(그림1)

1 박자

《하나, 둘》에 왼팔을 약간 앞으로 한발자국 내 디디고 발뒤축으로 선다. 그다음엔 발끝을 굴려 옮긴다.

오른팔을 앞으로 올리고 왼팔을 뒤로 낮춘다 (그림 9)

《셋, 넷》엔 전 동작과 같이 오른발부터 한발자국 내 디딘다.

2 박자

《하나, 둘》엔 전 동작과 같이 왼발부터 한발자국내 디딘다. 팔은 전과는 반대로 왼편 우를 향하게된다.

《셋, 넷》엔 오른발을 뒤로 가져간다. 팔은 오른편으로 물결 같이 흔든다. 이때에 무릎은 약간 굽힌다. 걸음은 부드럽게 굴려 옮긴다.

띠를 쥔 손은 가볍게 물결 같이 움직인다.

동작 2 (그림 15, 16, 17, 18)

1 박자 :

띠를 가지고 오른쪽에 궁형을 그린다 (그림15)

2 박자 :

띠를 왼쪽으로 가져갔다 (그림 16)

3 박자 :

오른쪽으로 때 흔들며 머리 우에 넓은 원을 그린다.

띠의 오른쪽 끝은 왼쪽 아래에 가져가고 왼쪽 끝은 오른쪽 우로 올 간다 (그림 17, 18)

4 박자 :

띠를 우로 흔들며 출발 위치에 돌아 간다 (그림 14)

동작 3

1 박자 :

무릎을 굽히고 오른팔을 왼쪽에 가져다 흔들며 원을 그린다(그림20)

2 박자 :

왼팔을 오른쪽에 가져다 흔들며 원을 그린다 (그림 21).

3 박자 :

《하나, 둘》에 손을 돌며 앞으로 뽑아 낸다

《셋, 넷》에 량팔을 벌린다 (그림 22)

4 박자 :

량팔을 우로 들었다 아래로 내려 펄치며 8회 동작을 계속한다.

동작 4

1, 2, 3 박자 왼발부터 왼편 앞으로 세 발자국 나간다.

4 박자 :

오른발을 왼발에 모으고 무릎을 약간 굽힌다.

이때에 오른 손을 왼편 앞 가슴에 가져다 대고 띠의 왼쪽 끝을 띠의 안으로 가져다 왼쪽 우로 올린다(그림23)

5, 6, 7 박자 :

오른발부터 시작하여 세번 뒷 걸음 친다.

8 박자 :

오른편을 향하여 왼발로 서서 다리를 약간 굽힌다.

동시에 띠의 끝을 쥔 왼손으로 매듭을 풀어 뽑아 내고 량팔을 벌린다. 오른팔을 높이고 왼팔은 낮춘다. (그림 24)

9, 10, 11 박자 :

왼발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세 걸음 나간다.

12 박자 :

왼팔을 들어 올리고 오른손을 그 가운데 밀어 넣어 왼손과 바꿔 띠를 쥐고 량팔을 벌린다 (그림 26)

13, 14, 15 박자 :

왼발부터 시작하여 세 걸음 오른편 뒤로 간다.

16 박자 :

왼발을 오른발에 모으고 무릎을 약간 굽힌다 동시에 오른팔을 앞으로 올리고 왼손을 그 가운데 덜

어 넣어 떠를 바꿔 쥐고 량팔을 벌린다. 왼팔을 더 높이여 떠를 등 뒤로 가져 간다.

동작 5 (그림 7)

제4 동작을 반복한다. 세 걸음 나가 무릎을 약간 굽힌다. 동시에 1, 2, 3, 4 박자에서는 앞으로 오른손을 넓게 흔들어 떠의 끝을 우로 올려 앞에 나오게 한다. (그림 29)

5, 6, 7, 8 **박자 :**

뒤로 물러서면서 뒤로 가게 한다.

9, 10, 11, 12 **박자 :**

왼편으로부터 등 뒤로 궁형을 그리며 떠의 오른쪽 끝이 왼 쪽으로 가게 한다 (그림 30)

13, 14, 15, 16**박자 :**

왼쪽으로 돌며 떠의 왼쪽 끝을 당긴다.

동작 6 (그림 8)

1, 2, 3 **박자 :**

왼발부터 세 걸음 앞으로 나간다.

4 **박자 :**

오른발을 왼발에 모으고 다리를 약간 굽히며 몸을 약간 왼편으로 돌린다.

동시에 떠의 끝을 모아 앞 가슴에 모은다 (그림 31)

그 다음엔 앞으로 오른발을 내 디디고 팔을 벌린다. 오른팔은 앞으로 좀더 높이 올린다 (그림 32)

함남 홍원 제 1 중 학교
허 태 국

아침 일찌기
고향의 언덕에 오르면
동해 바다 해'님은
눈부시게 솟아 오르고
조국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바다의 아저씨들 노래 부르며
고기'배를 저어 저어
부두'가에 들어 오고
집집마다 아침 연기
뭉게뭉게 솟아 오르죠

날마다 새 살림 꽃피여 가는
바다'가의 우리 마을 자랑스럽죠
우리 나라 방방곡곡 집집마다에
고루고루 생선을 보내기 위하여
아름다운 고향의 아침은
로동으로 시작되고
마을은 집집마다 웃음으로 넘치죠

곤충들은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요

김 일성 종합 대학 생물 학부
동물학 강좌 주 동 률

자연 속에 살고 있는 곤충들의 모든 생활 과정은 온도와 긴밀하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곤충들은 일정한 온도에서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곤충들에게 적합한 온도는 10°C에서 40°C 사이입니다. 그러나 곤충들이 가장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일 적합한 온도는 20°C에서부터 30°C 사이입니다.

곤충들은 겨울이 닥쳐와 온도가 내려가면 처음에는 먹기를 그만두고 다음에는 움직이는 것을 중지하며 그 다음에는 마비 상태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점차 추위가 심하게 되면 많은 곤충들은 죽어 버립니다.

그러나 곤충들 가운데는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어떤 것은 땅 속에 들어 가며 어떤 것은 가을에 수풀 속에 들어 가기도 하고 또는 농작물을 수확한 글거리 속에 들어 가서 겨울을 지냅니다.

우리들은 아래에서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몇개의 중요한 곤충들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상세히 보기로 합시다.

흰 나비는 여름철에 배추, 양배추 밭에서 날아 다니다가 배추와 양배추 잎에다 알을 낳고 죽어 버리지만 알에서 깨여난 유충인 청벌레는 늦은 가을까지 배추와 양배추의 잎을 먹으면서 충분히 영양을 취하고 겨울을 지내기 위한 준비로서 소화 기관, 배설 기관 및 기타 몸의 여러 부분에 지방을 많이 축적합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을 축적한 청벌레는 해'별이 잘 쪼이는 건물이나 높은 나무가지에 기여 올라 가서 거기에 거미줄을 치고 번데기로 되여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흰 나비의 번데기는 겨울 동안 체내에 축적한 지방을 자체내 영양으로 하면서 약간한 신진 대사를 진행하지만 그의 발육은 거의 중지됩니다. 겨울을 지낸 번데기는 봄 3—4월경에 이르러 겨울 동안 소모한 나머지 지방과 구리고겐 (섭취한 탄수 화물이 소화 흡수되여 저장된 영양소)에 의하여 다시 활기를 띠며 발과 날개 등이 완성된 성체(흰 나비)로 되여 나옵니다.

또한 고산 흰 나비는 어린 유충으로 있을 때 거미줄 모양의 실 (토사) 로서 누런 나무 잎을 오그리고 그 둥지에서 집단적으로 겨울을 지내는데 이 유충은 늦은 가을까지 여러가지 과수의 잎을 먹으면서 체내에 지방을 축적하고 겨울을 지내는 동안에 이

축적한 지방분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 돌아 오면 발육이 중지되였던 유충은 피하의 지방과 구리고겐에 의하여 활기를 띠며 다시 식물을 먹으면서 성장하다가 번데기의 시기를 거쳐서 고산 흰 나비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게 여러가지 병균을 매개하는 집파리와 모기와 마라리야 모기들은 겨울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봅시다.

집파리들은 겨울이 닥쳐오고 추위가 심하여지면 대부분은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일부 남은 파리들은 집 천정구석 또는 책장 같은 것들을 놓은 뒤'벽에 붙어서 그대로 겨울을 지냅니다.

이렇게 하여 겨울을 지낸 파리들은 봄으로부터 여름에 거쳐서 무수히 번식하게 됩니다.

모기와 마라리야 모기들도 겨울이 닥쳐와 눈이 오고 추위가 심하여지면 대부분이 죽고 일부 남은 것들은 겨울 동안 지하실 벽, 오양'간 벽, 방안의 벽과 구석 등에 붙어서 성충의 형태로 겨울을 지냅니다. 모기도 겨울 동안 발육하지 않지만 겨울 전에 피하에 축적한 지방분과 구리고겐 등에 의하여 약간의 신진 대사를 진행하며 봄에 온도가 높아 감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다음에는 농작물에 큰 해를 주는 벼 메뚜기, 노린재, 풍뎅이 등을 보기로 합시다.

벼 메뚜기는 알의 형태로서 겨울을 지내는데 늦은 가을에 해가 잘 비치는 논두렁 밑 땅 속 약 4—5cm의 깊이에 알을 낳고 성충은 추위에 죽어 버립니다.

한마리의 벼 메뚜기가 낳는 알의 수는 약 100개 정도인데 한 곳에 약 30개씩 낳습니다. 이 알들은 겨울을 지나서 5월 중순으로부터 5월 말에 이르는 사이에 땅 속에서 조그마한 메뚜기로 깨여 납니다. 그리하여 이 벼 메뚜기들은 처음에는 잡초를 먹다가 다음에는 벼 잎을 먹으며 큰 해를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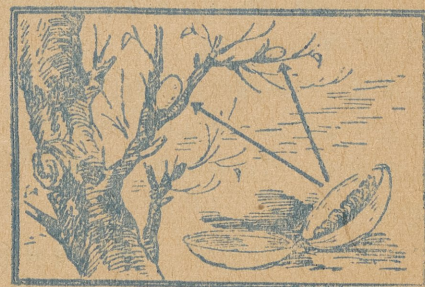
노린재는 우리 나라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벼 노린재, 배추 노린재, 누런문수염 노린재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곡식을 추수한 후에는 밭에서 산림 숲 속으로 이동하여 갑니다.

이때까지 노린재들은 영양을 충분히 취하고 겨울 준비로서 체내에 많은 지방분을 저장합니다.

그리하여 노린재들은 떨어진 나무 잎 밑에서 아무 것도 먹지 않고 발육이 중지되나 약간의 신진 대사를 진행하면서 겨울을 지냅니다. 그리고 봄철이 돌아 오면 체내에 있던 지방과 구리고겐의 작용에 의하여 다시 활기를 띠고 곡식 밭에 나와서 곡식을 해합니다.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가지 풍뎅이(먹풍뎅이, 수염 풍뎅이, 콩 풍뎅이, 비로드 풍뎅이)들은 보통 알을 땅에 낳는데 이 알에서 깨여난 유충인 굼벵이는 땅 속에서 살면서 식물의 뿌리와 감자 등에서 영양분을 파 먹습니다. 이렇게 유충 시기가 4년 동안 계속되는 가을에 유충은 번데기가 되고 그 안에서 풍뎅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풍뎅이들은 겨울에 땅 속에 들어 가서 성충 형태로 겨울을 지내는데 추운 겨울 동안에도 죽는 수는 극히 적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곤충들은 여러가지 형태 (알, 유충, 번데기, 성충)로서 겨울을 지내는데 겨울 동안은 거의 발육을 중지하고 체내에 축적한 영양분을 소모하면서 지냅니다.

아주 간단한 현미경

현미경은 자연을 사랑하며 연구하는 동무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현미경의 제작법을 다음에 소개합니다. 이 현미경은 조그마한 물체들을 50—80배로 확대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미경을 만드는데는 적은 철판과 양철 자박지 직경 3mm인 라사못, 마분지나 두터운 종이, 그리고 약간의 풀이 필요합니다. 물방울은 대물 렌즈로 대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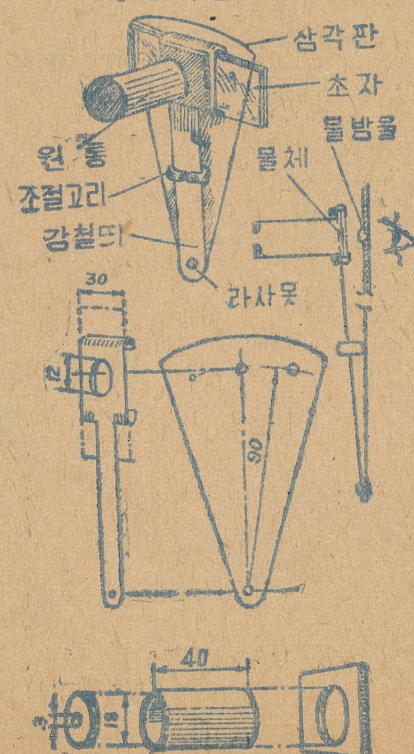
이러한 자재들이 준비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부속품을 만듭니다.

현미경은 삼각판 양철띠 원통과 이동고리들로서 조립됩니다.

현미경의 삼각판은 잘 닦은 철판을 콤파스와 자로서 그림과 같은 모양으로 재여 짜릅니다. 다음에는 4개의 구멍을 뚫으시요. 그 하나는 라사못이 꼭 들어 맞게 뚫으며 그외 세 구멍은 물 렌즈가 들어가게끔 1, 2, 3 mm의 직경으로 뚫으시요. 그런데 물렌즈가 들어 가는 구멍들은 한쪽이 경사가 되도록 한쪽 직경을 넓게 뚫어야 하며 이 구멍들을 빼빠로서 반들반들하게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철띠는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양철판을 길이가 130mm, 너비가 30mm로서 짤라 내시요. 여기에도 두개의 구멍을 뚫으시요. 그 하나는 라사못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다른 하나는 물체를 들여다 보는 『창문』 구멍입니다. 이 두 구멍의 중심점간의 간격은 90mm여야 합니다(물 렌즈가 들어 가는 구멍들과 삼각판 우의 라사못 구멍과의 간격도 이와 같아야 한다) 다음 양철띠의 우 부분은 큰 구멍을 중심으로 물체를 넣은 유리가 끼워지게끔 상하로 꾸부려야 합니다.

조절 고리는 굵은 쇠 줄을 짤라 만들어 양철 우에 끼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롭게 움직여야합니다.

원통은 마분지로서 그림

에 표시된 규격에 따라 만들고 양철띠의 큰 구멍에 맞추어 풀로써 붙이시요.

이렇게 모두 준비되면 현미경을 조립하시요. 조절고리를 끼운 양철띠를 삼각판에 올려 놓고 라사못으로 양철띠가 좌우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고정시키시요. 이때에 원통의 구멍과 삼각판의 구멍과 일치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현미경이 완성됩니다.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조그마한 물체를 끼우기 위한 두장의 유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보통 창문 유리 조각들을 75×25mm의 구형으로 짜르면 됩니다.

다음엔 삼각판 각 구멍에 뾰족한 성냥 꼬치를 대고 물방울을 넣으시요. (구리세링을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 물방울들은 량면 볼록 렌즈와 같습니다. 이것들은 대물 렌즈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물방울들이 삼각판 표면에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시요.

그러면 현미경의 삼각판 구멍에 눈을 가까이 하고 해'빛이 원통 구멍과 물렌즈를 통하여 유리 사이에 있는 물체를 비칠 수 있도록 서시요.

조절고리를 상하로 조심이 움직이면서 물렌즈 안에 보이는 물체를 가까이 또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안에 든 물체를 삼각판의 각 구멍으로 번갈아 들여다 보시요. 삼각판의 구멍이 좁을수록 물체는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유희

누가 더 빨리

이 놀음은 스키를 타고 재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놀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의 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중 한명의 어린이는 지도자로 됩니다. 지도자 외에 전체 어린이들은 원형으로 서서 스키창들을 자기 자리에 꽂아 놓으시요.

다음 지도자를 따라 창이 없이 지도자가 「자기 위치로!」라고 웨칠 때까지 지치시요. 이 구령에 의하여 전체 어린이들은 자기가 섰던 본 위치로 달려 갑니다. 지도자는 원형 내에 있는 한개의 창을 빼앗습니다. 이리하여 창을 빼앗긴 동무가 이번에는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하여 유희는 계속됩니다. (그림 1)

—☆—

눈 사 람

이 유희를 하려면 우선 눈으로 큰 눈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 눈 사람의 몸둥이에는 큰 바'줄을 통하게 하고 유희자들은 두 편으로 나누어 진다.

한편은 눈 사람의 한쪽에 한 줄로 서서 바'줄의 한끝을 잡는다.

상대편은 상대쪽 바'줄의 끝을 튼튼히 잡는다.

이렇게 정렬한 유희자들은 심판원의 신호에 따라 바'줄을 잡아 당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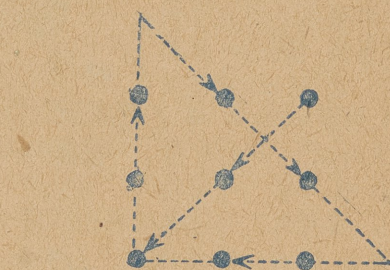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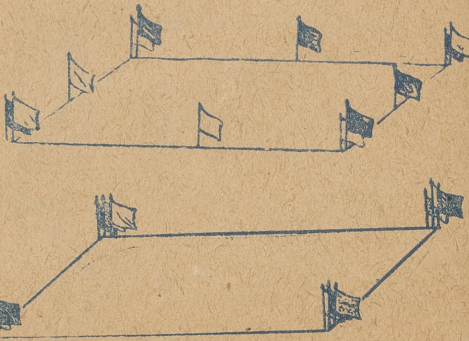
상대편이 눈에 너머지게 하거나 상대편의 선두자의 손이 눈 사람에게 닿게 하는데 성공한 편이 승리자로 된다.

그러나 바'줄은 손에서 마음대로 놓거나 다른 방향으로 당기지 말아야 하며 자기 쪽으로 당겨야 한다. (그림 2)

(그림 1)

(그림 2)

현상문제

『두 기차』

급행 렬차가 평양에서 신의주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 렬차는 도중에서 한번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한 시간에 60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급행 렬차는 신의주로 부터 평양을 향하여 한번도 정차하지 않고 한 시간 40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렬차가 서로 만나기 바로 한 시간 전에 두 렬차 사이의 거리는 얼마이겠습니까?

용감한 『수비대』

눈의 요새를 용감한 「수비대」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5회 공격하였으나 끝내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유희를 시작할 때 「수비대」는 40명이였습니다. 『수비대장』은 자기의 전사들을 왼 편에 제시된 도표처럼 력량 배치를 하였었습니다. (중앙의 정방형 내의 수는 총수) 「적군」이 보기에 「수비대」는 4면을 11명씩이 요새를 지키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의 격전에서 「수비대」는 매번 4명씩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5차 격전 때에 「수비대원」은 또 2명이 「전사」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비대」는 매 격전에서 대원들이 줄어 갔으나 마지막까지 4면을 각각 11명씩이 지키며 싸웠습니다.

「수비대장」은 매 격전 끝에 어떻게 자기의 력량을 재 배치하였겠습니까?

1	9	1
9	40	9
1	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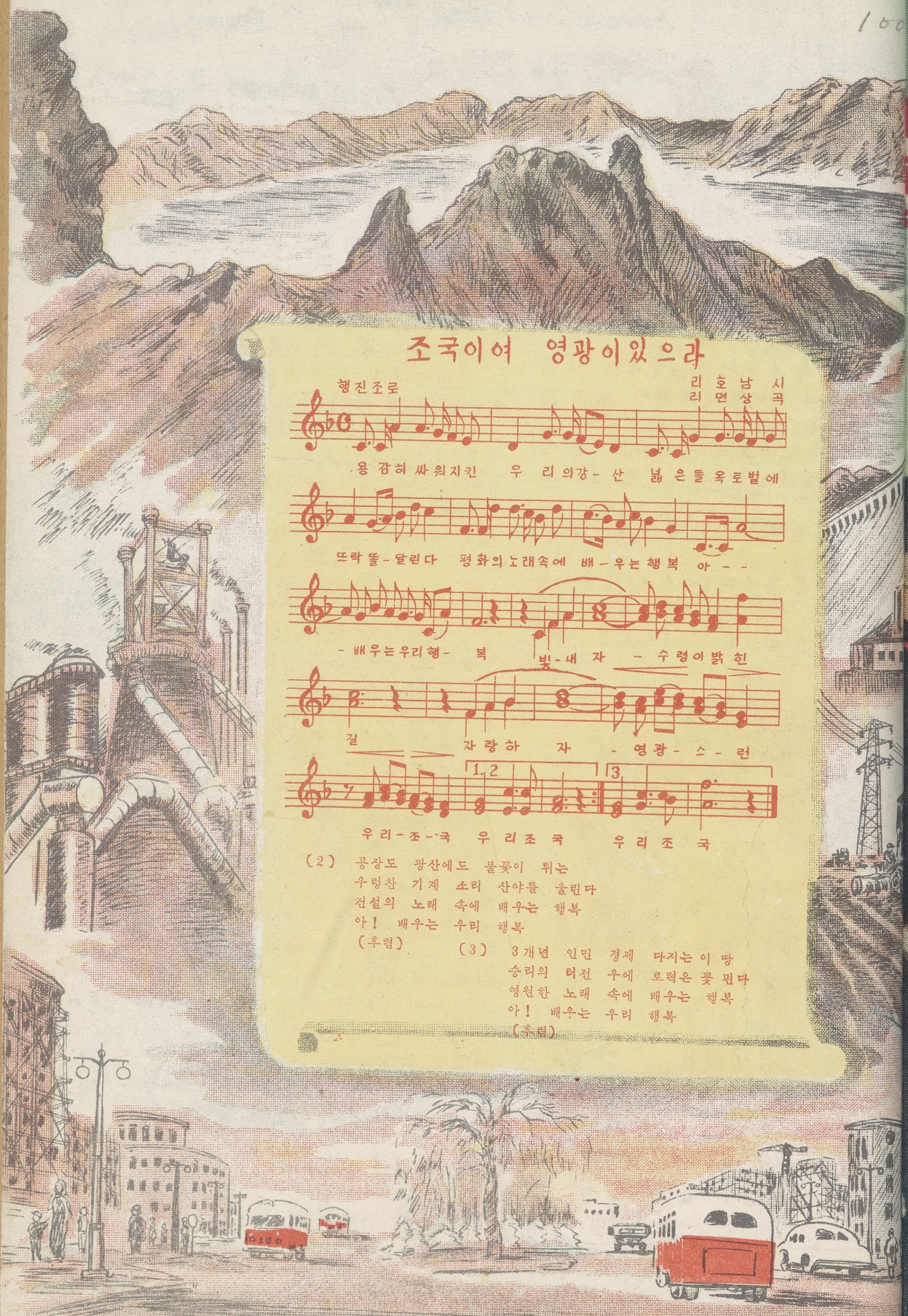
—☆—

11호 현상 문제 당선자

평양 특별시 제4 인민 학교 리 정숙
황해북도 판문군 선적 인민 학교 문 상후
함경남도 홍원군 룡운 인민 학교 김 남근
평안북도 신의주 제5 인민 학교 림 명현
평안남도 룡강군 동전 인민 학교 손 춘심
황해남도 송화군 룡호 인민 학교 공 창국
강원도 통천군 제5중학교 인민반 박 재섭
자강도 성간군 쌍방 인민 학교 최 종기
함경북도 경원군 하면 인민 학교 정 강현

☆

평안남도 개천 제7 중학교 송 무웅
평안북도 피현 제2 중학교 신 영진
평양 제4 고급 중학교 초급반 안 락근
황해남도 은률군 제1 중학교 김 종만
황해북도 사리원 제1 중학교 김 영자
강원도 통천군 제5 중학교 황 봉남
평안남도 증산군 림성리 정 양동
야간 성인학교 오 진화
함경북도 회령군 제2 중학교 리 길복

1955년 1월 15일 인쇄
1955년 1월 20일 발행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55년 제1호 (총 64호)
발행소 민주 청년사 책임주필 리 두 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0174 값 40원 총 배포처 체신성 출판물 관리국

100
조국이여 영광이있으라
행진조로
리호남 시
리면상 곡
용감히싸워지킨 우리의강-산 넓은들옥토벌에
뜨락똘-달린다 평화의노래속에 배-우는행복 아--
-배우는우리행- 복 빛-내자 -수령이밝힌
길 자랑하자 -영광-스-런
우리-조--국 우리조국 우리조국
(2) 공장도 광산에도 불꽃이 튀는
우렁찬 기계 소리 산야를 울린다
건설의 노래 속에 배우는 행복
아! 배우는 우리 행복
(후렴)
(3) 3개년 인민 경제 다지는 이 땅
승리의 터전 우에 로력은 꽃 핀다
영원한 노래 속에 배우는 행복
아! 배우는 우리 행복
(후렴)